

심규언 동해시장 “북방물류거점 동해항 육성, 남북 경제협력 준비”



동해 심규언 호의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새로운 조직력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심 시장은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시정을 펼치고 있다. 폐광산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지 개발, 미래 성장 동력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루려는 민선 7기는 안정적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심 시장의 미래 구상을 들어본다.

◎ 민선 7기 출범 100일이 지났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가.

민선 6기의 연장 선상에 있는 성과 위주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장·단기 사업을 분류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 무릉 3지구 개발사업과 한섬개발 등 신성장 동력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 최근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다. 동해시가 준비하는 사업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시대가 예고되며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동해시는 동해-목호항을 비롯한 도 유일의 경제특구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동해 자유무역 지역 등의 인프라를

남북교류 협력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강원평화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 시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 북한 광물자원을 활용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북한 수산물을 활용한 환동해권 콜드체인 구축사업 활성화 △ 남북필드하키팀 공동 전지 훈련 등 3개 사업을 강원도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미래첨단산업 회토류 거대소 설립, 제2 쇄빙선 모항 유치, 북극센터 설치,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통한 북한 광물자원 전용 선석 확보, 나진항-동해항 간 정기 물류항로 개설 등 4개 사업을 추가 건의했다.

◎ 남북 경험 모색 이후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북방 물류 산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해항을 남북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부응한 원자재 지원 허브항과 환동해권 북방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 특히 동해항 3단계 개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이다. 1979년 개항한 동해항은 시 개청 이후 동북아 환동해권 중심부에 있는 국제 무역항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다. 석탄, 시멘트 등 단순 벌크 화물만 처리하는 산업 기능에서 탈피하고 컨테이너 시설 확충, 벌크 화물 시설 다변화, 콜드체인 클러스터 활용을 통해 복합 물류 중심 항으로 거듭날 것이다. 정부가 시의 장점을 잘 파악해 남북 물류의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1 심규언 동해시장이 11월 15일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동해항 출발 금강산 관광' 20년을 기념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2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2월 6일 목호항에 만경봉 92호를 타고 도착했다. 3 쌍용양회 동해공장 종합운전실에서 관계자가 시멘트 제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무릉 3지구 폐광산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무릉 3지구 채석장은 기존 단순 산림화 복원보다는 폐광지를 친환경적, 창조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에메랄드빛 호수, 웅장한 절개면 등 이색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채석장을 정원관광, 복합형·휴양 관광지주로 조성할 것이다. 또 채석장 내 폐산업 시설들은 문화재생산업통해 문화·예술·교육·체험·휴식 등 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다.

◎ 한섬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동해시 천곡동 중심 시가지와 인접한 한섬은 1981년 도시 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됐다. 오는 2025년까지 시 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나 최근 동해고속도로(동해~삼척), KTX(강릉~동해), 동해남부선철도(포항~삼척)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사계절 체류형 해양 관광지로서의 개발 가치가 높아졌다. 국내외 민간투자자의 다양한 제안으로 리조트, 관광호텔, 마리나항, 체험시설 등 복합적인 해양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해안 산책길 등은 시가 주도적으로 실시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 KTX가 내년 하반기 동해역까지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관광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동해역 KTX가 개통되면 서울~동해 구간은 2시간 거리로 단축된다. 관광객이 동해역과 목호역을 시작점으로 자유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추암 촛대바위, 북평민속장시장, 목호역 인근의 동쪽바다중앙시장, 목호항 활어회센터, 목호등대와 논골담길 등을 걸으면서 돌아보는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가치관광 상품과 연계해 수도권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 추이에 따라 역세권과 시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도 확충할 방침이다.

◎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당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집권당이라고 일이 쉽고, 야당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다. 시민을 위한 열정으로 뛰어야 시가 살아남을 수 있다. 아직 당적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다.

◎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시민들이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았으면 한다. 동해시는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향후 10년 내 더 잘살 수 있는 도시로 변할 것이다. 시민의 열정이 시를 변화시킬 것이다. 함께 뛰고 싶다. ♣

내 인생이 뜨는 시간! 동해時



감성관광 1번지

사계절이 좋은 동해시 여행



명상해변한옥촌



황금박쥐천곡동굴



추암 촛대바위 일출



추암오토캠핑장



목호등대&논골담길&바람의언덕



목호야시장
매주 금, 토 17:00-24:00



동해무릉건강숲



무릉계곡